

“불교, 물질만능 치우쳐 계율정신 잊어왔다”

11월 26일 자운계율사상연구원 세미나서 고연 이어져

“한국불교 승풍,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불교는 참담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한 세미나장에서 노스님들의 질타와 계율 정신 회복에 대한 절절한 담부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계율을 바로 세우고 불교중흥에 헌신했던 자운 스님(1911~1992)의 계율 사상을 잇는 자운계율사상연구원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에서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은 조계종 원로위원 세민 스님, 원장을 맡은 원로위원 인환 스님, 운영위원장을 맡은 원로위원 성우 스님 등이 나서 한국불교의 청정승가 회복을 당부했다.

세민 스님은 “자운 스님의 뜻은 계정해 삼학이 뚜렷한 수행전통, 계율정신이 살아 있는 종단, 사부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승가상을 구현하는 것이었기에 적박한 현실에서도 비구·비구니 계보를 수만년 배포하고, 각처를 다니며 계를 설파했다”며 “하지만 스님 입적 20년 후 종단과 불교계를 돌아보면 그 가르침과 정신이 잊혀지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민 스님은 이어 “연구원은 자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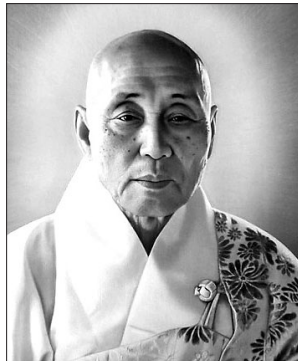
님만을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율 사상과 율장, 율원, 청구의 흐름과 함께, 계율 사상 구현에 이바지한 석암, 종수, 일타, 지관 스님의 생애와 사상도 연구할 것”이라며 “점차 퇴색돼 가는 계율 사상이 다시금 자리잡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인환 스님도 “불교사적으로 계율이 잘 지켜질 때 불교는 왕성했지만, 반대로 계율이 문란하면 쇠퇴했다. 우리 한국

계율사상 전문연구기관으로 출범 원로 스님 대거 임원으로 참여 ‘퇴색돼 가는 계율의 가치 살릴터’

불교의 승풍이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불교가 사회의 등불,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사회에서 격정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성우 스님은 세미나장에 모인 젊은 학인 스님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이날 세미나장에는 해인사·범어사·운문사·청암사·봉녕사 등에서 200여 학인 스님들이 운집했다.



조계종 전 대회장 자운 스님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은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계율 연구를 나선다.

성우 스님은 “스님 한분 한분이 스님답게 계율을 지킨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다”며 “이를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학승가대학원, 수행 정제세 세워야”

이날 출범식에 이어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은 ‘조계종단과 계율’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조계종단의 율원(律院)의 역사와 문화’ 발표에서 “최근에는 총림이 늘어나며 체계를 위해 율원이 율학승가대학으로 개칭·운영되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조적인 계율만 배우고 익히는 교양차원에서의 계율과 달리 수행차

원에서의 계율은 또 다른 의미기에 승가 대학에서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율장정신과 조화된 중현중법의 집행, 현대사회 각 문제에 대한 계율의 새로운 접근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해인사 경성 스님은 청구 및 계율을 활발히 시행하려는 노력이 종단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성 스님은 “조계종이 외부발전에만 치중하 나머지 청정계행 확립이란 내적 성숙을 놓쳐왔다. 승가와 종도 모두가 선지식이 되고 큰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자세를 지니고 나선다면 불교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은 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구자 현장 접근 위한 종단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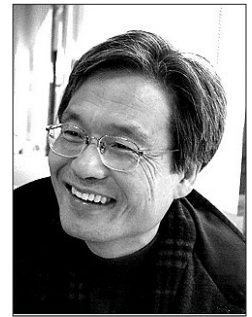
김용덕 조계종 성보위원,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서

조계종 성보위원 김용덕 교수(한양대·사진)는 최근 <한국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을 발간했다. 책은 불교민속을 다양한 면에서 분석, 정리한 최초의 자료 집이다.

김 교수는 책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20여개 중 불교문화재는 ‘영산재’ ‘연등회’ ‘수륙재’ 뿐이다”며 “그동안 불교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문화는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으로 의식주, 수행의례, 전통기에 등 조사할 부분이 많다. 불교민속 연구의 현장 접근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설립과 연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교민속행사는 다비식처럼



불시에 발생하기도 하기에 지역 사찰마다 일어나는 행사 정보도 미리 알고, 현장을 조사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한 종단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책 제1장에서 불교민속 연구 방법론을 다뤘으며 제2장은 불교의례 성격과 구조, 상징적 체계, 제3장은 꽃살문 설화도 지화 등 사찰 장엄, 제4장에서는 연등의 설명 현장, 제5장은 불보살 신앙의 전승 현장을 담았다. 노덕현 기자

미륵사 사리장엄의 숨은 이야기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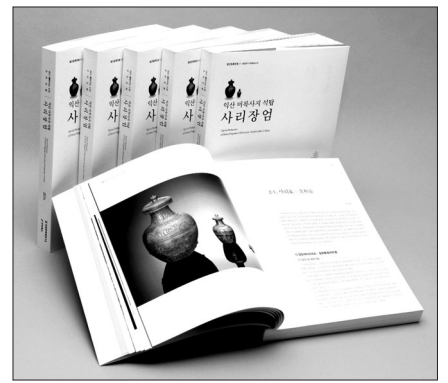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발간

백제불교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미륵사지 사리장엄에 대한 첫 조사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최근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을 발간했다.

사리장엄은 미륵사지 석탑 해체 중 발견된 것으로 △금동제 사리 외호(金銅製舍利外壺) 1점 △금제 사리 내호(金製舍利內壺) 1점 △금제 사리 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 1점 △은제 관식(銀製冠飾) 2점 △청동합(靑銅合) 6점 △각종 구슬(靑, 진주, 유리, 마노) 9,700여 점 등 총 9,900여 점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금으로 만들어진 사리 봉영기에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하여 가람을 창건하며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다양 유물의 절대연대와 석탑의 발원지가 명확히 밝혀졌다.

이번에 발간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보고서에는 9900여 점의 유물 수습 과정과 정밀 기록, 보존처리, 성분 분석 등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연구 과정이 상세히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남북통일에 있어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은?

<불교평론> 지령 60호 맞아 ‘불교, 통일을 말한다’ 특집

북한 지역의 종교인식과, 통일 과정과 이후 통합과정에서의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불교평론>은 지령 60호를 맞아 2014년 겨울호로 ‘불교, 통일을 말한다’ 특집을 펴냈다.

특집호에는 △윤법달 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의 ‘북한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 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의 ‘북한불교의 역사와 현황’ △노귀남 동북아미사사 회연구소 연구원의 ‘남북불교 교류의 의의와 전망’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의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상상하는 한반도의 미래’ △김홍수 목원대 교수의 ‘한국개신교의 통일선교 운동’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분단극복과 불교의 역할’ △유승우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합심문화와 마음의 통일’ 등 7편의 논문이 실렸다.

윤법달 교수는 ‘북한의 종교인식과 불교’를 통해 “북한은 현재 서방세계에 적극적으로 개방과 정책을 취하며 종교를 대외교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현재 1만명의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이 종교와 불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들로부터

남북한 불교 교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수 교수는 1980년대 이후 개신교의 통일선교운동 흐름을 짚고 북

한을 선교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각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분단 극복을 위한 불교의 역할은 먼저 남북·남남갈등 해소와 민족동질성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며 “화정의 논리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공영의 사상을 사회에 알리는 데서 통일운동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의 ‘세월호 앞에서 종교를 다시 생각한다’ 등과 근현대 불교학자들이 제 조명한 기획 연재 ‘현대한국의 불교학자’, 문화비평으로 △신성민 본지 기자의 ‘인생은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야’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불복장 전승은 한국불교 전통 살리는 것”

대한불교 전통불복장보존회 11월 27일 창립 첫 학술대회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 이하 보존회)는 불교문화재 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존회 회장 무관 스님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불교의 유무형 유산들이 관심을 받고 보존방안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불복장 시원, 신라 불탑 사리장엄구 이날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은 ‘중국불상의 성물 봉안’ 발표를 통해 중국불상의 성물 봉안 전통과 한국불교의 복장 의례를 구분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불복장의 기본 형식은 고려 팔엽통, 조선 후령통이라 지칭되는 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팔엽통과 그 중심이 되는 오보병은 현재까지 조사된 중국불상에서 발견된 바가 없다. 이는 고려시대 중에도 마카다국 출신 자현 스님이 고려 전래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는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사 및 특징”에서 “754년~755년



사경제작의식에 향이 등장해 사리공양구에 포함됐으며, 766년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 대좌에 나온 사리구, 동화사 석조 비로자나불상상의 사리구의 직물과 향목 등 공양구를 보아 그 연원이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시원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탑 사리장엄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전통 불복장의식 실행자 계보와 불복장에 납입되는 물품 등 실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보존회는 이날 지난 7월 시연회 담은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도 발간,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동국선원과 협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불교문화대학원은 11월 25일 부산 동국선원(동국사 주지 법안)과 불교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교교육 및 불교문화사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불교계 인사와 국회의원, 해운대구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맹회 사무실 개소식과 헌찬식을 겸해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과 동국선원은 앞으로 △교육·문화사업 운영 지원 △인력자원 유지 협력 등을 지원한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과 대한불교 동국선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엘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 watt 1대
- 소형 믹싱 5개 1대
- 탁상형 구조재미크 1대
- 사형저음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 1대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 칠성상회

02-879-2007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열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떡(30매)
인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마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미소와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환관 (직경 날개시대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